07-35 (통권 266호)
2007.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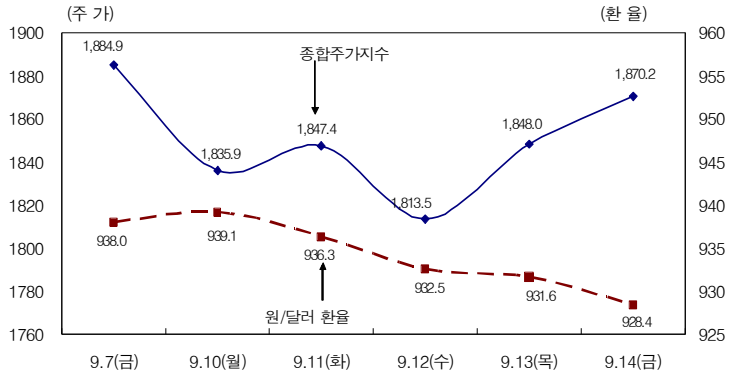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소비자(판매)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7~9.14)



주가	환율	금리	유가
-14.7	-9.6	0.01	2.70
1,870.2 (종합주가지수)	928.4 원 (원/달러)	5.37% (국고채 3년물)	73.39 달러 (두바이油)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소비자(판매)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5

□ 실물 부문 : 8월 실업률 3.1% 15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의 하락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표 한 형 연 구 위 원 (3669-4131, raisosa@hri.co.kr)

Executive Summary

□ 소비자(판매)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 한·미·일 가계 신용 현황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현황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 신용 총액은 1994년 116조 원에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11조 원으로 연평균 20% 이상 급증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이후 1999년부터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서 2006년말 현재 582조 원에 달하고 있다.(2007년 6월말 현재 596조원)

가계 신용의 대부분은 가계 대출로 1994년 100.3조 원에서 2006년말에는 550.4조 원까지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주택 대출이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판매) 신용 증가율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 44.5%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부터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06년말 현재 소비자(판매) 신용 잔액은 31.5조 원으로 2002년의 최고치인 47.9조 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에서 소비자(판매)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현재 5.4%에 불과하다. 민간최종소비대비 소비자(판매) 신용의 비중도 1994년 8.8%에서 2002년에는 12.6%까지 증가하였으나, 카드사 부실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06년에는 6.9%로 하락하였다.

2. 미국, 일본과의 국제 비교

(미국) 가계신용잔액은 97년 54,940억 달러에서 20004년에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06년말 현재 12조 81,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97~06년 기간중 '00년을 제외하고는 주택대출의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가계대출이 가계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대출은 '97년 3조 7,543억 달러에서 '06년 9조 7,047억 달러로 약 2.58배 증가하였다. 한편, 소비자(판매) 신용의 증가율은 2000년 들어서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02~'04년에는 5%대를, '05~'06년에는 4%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신용에서 소비자(판매)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5%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최종소비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은 25%내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6.9%에 불과하다.

(일본) 가계신용은 장기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97년 233.8조 엔에서 '01년 249.8조 엔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감소세로 반전하여 '06년에는 246.6조 엔을 기록하였다. 가계대출 잔액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관련 대출이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97년 150.9조 엔에서 2006년 187.2조 엔으로 36.7조 엔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 (판매) 신용은 97년 41.7조 엔에서 2000년 들어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 39.4조 엔을 기록하였다. 가계신용에서 소비자(판매)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대로 한국의 5%대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지출대비 소비자(판매) 신용비중은 미국보다 10%p 낮지만 한국(6.9%)보다 높은 14%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1만 달러 시기의 한·미·일의 국제 비교

1인당 GNI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 기간 동안의 가계 신용 증가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78~'88년)과 일본('84~'88년)은 연평균 가계신용 증가율이 각각 10.7%와 9.1%를 보인 반면, 한국은 14.4%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이 20%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대출 증가율이 소비자(판매) 신용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1인당 GNI 1만 달러 시점에 이미 소비자(판매) 신용 시스템이 정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1인당 GNI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가계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판매) 신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주택대출이 8.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판매) 신용이 연평균 22.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에서 소비자(판매)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 5.7%에서 1988년 11.2%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은 가계 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소비자(판매) 신용은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판매) 신용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8.8%에서 6.9%로 -1.9%p가 감소했다.

4. 분석 결과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분석 결과 종합) **첫째,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미국,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 비중은 미국 70%('06년), 일본 57%('06년),에 비하여 낮은 53%('06년)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미, 일에 비하여 낮다. **둘째, 소비자(판매) 신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게 작은 상황이다.** 가계신용에서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이 미국 19.0%('06년), 일본 16.0%('06년)에 비하여 크게 낮은 5.4%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자(판매) 신용도 2006년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6.9%로 미국 26.4%, 일본 13.6%에 비해 작다. **셋째,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다.** 2006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116.7%로 미국(101.8%), 일본(64.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가계 신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은 가계 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판매) 신용 시스템의 발전을 유도하여 소비 중심의 내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모기지 담보부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량 할부금융사의 주택 금융 확대 유도, 주택 전문 모기지 회사 육성, 연기금 및 보험사의 모기지 담보부 채권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판매)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시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및 취급 상품 개발 유연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신용평가시스템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채권 신용 평가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선진형 신용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부채 탕감 정책 자제, 개인 신용회생제도의 요건 강화,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금융 경제 및 신용 사회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도한 가계 부문 대출의 안정화를 통한 가계 건전성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하다.**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긴축 통화 및 고금리 정책 지속,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 재발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

< 소비자(판매)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

가계 신용 급증 및 소비자 신용 정체

- 2003년 이후 주택 관련 대출 급증
-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비중 감소세

현재 한·미·일의 가계신용 추이 비교

- 미·일에 비해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신용 비중 낮음
- 한국과 미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과도

1만 달러대의 한·미·일의 가계신용 추이 비교

- 미·일에 비해 가계 신용 증가율이 높음
- 한·일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 미국에 비해 저조

정책적 시사점

- 첫째, 모기지 담보부 채권시장 활성화
- 둘째, 소비자(판매)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셋째, 신용평가시스템의 선진화
- 넷째, 신용 경제 정착을 위한 의식 개혁 노력
- 다섯재, 과도한 가계 대출 안정화를 통한 가계 건전성 확보

1. 우리나라 가계신용의 추이

○ 우리나라 가계 신용[1] 증가 현황

- 우리나라 가계신용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20% 이상을 기록한 후, 2003년 1.9%로 급감하였으나 200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6년에는 10%를 넘어섬
  - 1994년 116조 원에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11조원으로 연평균 20% 이상 급등하였음
  -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83.9조 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2002년까지 214.0원에서 439.1조원으로 약 2.1배 증가
  - 2003년에는 카드사 부실 등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율이 1.9%에 그쳤으나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 8월말 현재 596조 원이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증가 추이 >

(단위: 조 원, %)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가계신용	116.0 -	142.7 (23.1)	174.7 (22.4)	211.2 (20.9)	183.6 (-13.0)	214.0 (16.5)	266.9 (28.0)	341.7 (28.5)	439.1 (28.5)	447.6 (1.9)	474.7 (6.1)	521.5 (9.9)	582.0 (11.6)
가계대출	100.3 -	122.2 (21.8)	151.0 (23.6)	185.0 (22.5)	165.8 (-10.3)	191.9 (15.7)	241.1 (25.6)	303.5 (25.9)	391.1 (28.9)	420.9 (7.6)	449.4 (6.8)	493.5 (9.8)	550.4 (11.5)
(주택담보 대출)	-	-	-	-	-	-	-	-	-	152.5 -	169.2 (11.0)	190.2 (12.4)	217.1 (14.1)
소비자 (판매) 신용	15.6 -	20.5 (31.6)	23.6 (15.0)	26.2 (10.8)	17.8 (-32.0)	22.1 (24.0)	25.8 (47.7)	38.2 (25.7)	47.9 (25.7)	26.6 (-44.5)	25.3 (-5.1)	28.0 (10.9)	31.5 (12.5)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주 :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택담보대출은 2003년부터 통계 발표.

1)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merchandise credit)의 합임. **가계대출**은 순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대출을 포괄하고 있음. 여기에는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우체국예금계정, 보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 속함. 한편 **판매신용**은 재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 거래를 포괄하고 있음. 여기에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 가전사 등 판매회사 제공 신용 등이 속함.

- 특히, 가계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
  · 가계 대출은 1994년말 100.3조 원에서 2006년말에는 550.4조 원으로 5.5배나 증가하였음
  · 이중 주택 담보 대출은 전체 가계 대출의 39.4%를 차지하는 217.1조 원으로, 공식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3년 152.5조 원에 비하여 42.4%가 증가[2)]
  ·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일반 가계 대출은 연평균 7.5% 증가한데 반하여 주택 담보 대출은 12.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주택 담보 대출이 주도하였음

- 한편, 소비자(판매) 신용 증가율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 44.5%가 감소한 이래 2005년부터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2006년말 현재 31.5조 원으로 2002년의 최고치인 47.9조 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임

○ 가계 신용의 구조

- 우리나라 가계 신용은 2006년말 현재 582조 원에 달하고 있음
  · 가계 대출은 550.4조 원으로 전체 가계 신용의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 가계 대출 중 주택 대출은 217.1조 원으로 전체 가계 신용의 37.3%에 달함
  · 반면, 소비자(판매) 신용은 31.5조 원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함

- 가계 신용 중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86.5%에서 2006년 94.6%로 약 8%p가 증가하였음
  · 가계 대출이 전체 가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은 소비자(판

2) 한국의 주택 대출은 은행 대출만을 포함하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나 보험회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 대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김인규, 권태율,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2007.07)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 대출의 규모는 297.7조 원으로 은행을 통한 가계 주택 대출 217.0조 원보다 80.7조 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가계 주택 대출의 비중은 표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높음

매) 신용의 증가 속도를 월등히 앞지르는 가계 대출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소비자(판매) 신용은 1994년 15.6조 원에서 카드 대란 직전인 2002년 47.9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에는 31.5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가계신용에서 가계대출 및 소비자신용 비중 추이 >

(단위: 조원)

	가계신용	가계대출	비중	주택대출	비중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
'94	115.9	100.3	86.5%			15.6	13.5%
'95	142.7	122.2	85.6%			20.5	14.4%
'96	174.7	151.0	86.4%			23.6	13.5%
'97	211.2	185.0	87.6%			26.2	12.4%
'98	183.6	165.8	90.3%			17.8	9.7%
'99	214.0	191.9	89.7%			22.1	10.3%
'00	266.9	241.1	90.3%			25.8	9.7%
'01	341.7	303.5	88.8%			38.2	11.2%
'02	439.1	391.1	89.1%			47.9	10.9%
'03	447.6	420.9	94.0%	152.5	34.1%	26.6	5.9%
'04	474.7	449.4	94.7%	169.2	35.6%	25.3	5.3%
'05	521.5	493.5	94.6%	190.2	36.5%	28.0	5.4%
'06	582.0	550.4	94.6%	217.1	37.3%	31.5	5.4%

자료: 한국은행, Ecos.

○ 개인가처분소득, 민간최종소비, 그리고 소비자(판매) 신용

- 우리나라의 소비자(판매) 신용은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비자(판매) 신용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8% 수준에서 안정
  ·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에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4.7%까지 하락
  · 2001~2002년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자(판매) 신용의 비중이 10%대

로 급증

· 이후,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다시 급속히 감소했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6년 현재 6.7%를 기록

- 민간최종소비 대비 소비자(판매)신용 비중도 개인가처분 소득대비 소비자(판매)신용 비중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동 비중은 1994년 8.8%에서 2002년 12.6%까지 증가하였으나, 카드사 부실 등의 영향으로 급락세로 반전하여, 이후 6%대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민간최종소비 대비 소비자(판매)신용 비중 추이 >

(단위: 조원)

	개인가처분 소득(A)	민간최종 소비(B)	소비자 (판매)신용(C)	(C/A)*100	(C/B)*100
'94	225.1	177.9	15.6	6.9%	8.8%
'95	252.3	208.5	20.5	8.1%	9.9%
'96	285.1	236.2	23.6	8.3%	10.0%
'97	307.1	258.6	26.2	8.5%	10.1%
'98	381.6	238.8	17.8	4.7%	7.5%
'99	335.3	274.9	22.1	6.6%	8.0%
'00	350.6	312.3	25.8	7.4%	8.3%
'01	365.9	343.4	38.2	10.4%	11.1%
'02	387.7	381.1	47.9	12.4%	12.6%
'03	403.9	389.2	26.6	6.6%	6.8%
'04	427.2	401.5	25.3	5.9%	6.3%
'05	446.3	426.7	28.0	6.3%	6.6%
'06	471.5	453.9	31.5	6.7%	6.9%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국민계정.

2. 미국, 일본과의 국제 비교

○ 미국 일본의 가계 신용 추이[3)4)]

3)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가계 신용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자금순환계정의 경제주체별 금융자산부채잔고에서 주택관련대출(Home mortgage),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 기타 항목의 합이 가계(Household) 부문의 부채로 발표됨. 여기서는 우리나라 통계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미국의 가계 부채를 가계 신용이라 칭하기로 함

- **(미국)** 가계신용 증가율은 '97~'01년까지는 10% 미만을 기록한 반면, '02~'05년에는 10%를 상회하였고, 2006년에는 소폭 감소한 8.7%를 기록
  - 가계신용잔액은 97년 54,940억 달러에서 20004년에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06년말 현재 12조 81,72억 달러를 기록
  - '97~'06년 기간중 '00년을 제외하고는 주택대출의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가계대출(주택관련 대출)이 가계신용 증가를 주도
  - 이에 따라 주택대출은 '97년 3조 7,543억 달러에서 '06년 9조 7,047억 달러로 약 2.58배 증가
  - 소비자(판매) 신용의 증가율은 2000년 들어서는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02~'04년에는 5%대를, '05~'06년에는 4%를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의 가계신용 추이 ('97~'06년) >

(단위: 십억 달러,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가계 신용	5,494.0 (5.8)	5,919.9 (7.8)	6,416.8 (8.4)	7,008.3 (9.2)	7,659.4 (9.3)	8,470.7 (10.6)	9,463.4 (11.7)	10,580.5 (11.8)	11,795.6 (11.5)	12,817.2 (8.7)
주택 대출	3,754.3 (6.1)	4,055.9 (8.0)	4,432.9 (9.3)	4,810.5 (8.5)	5,296.4 (10.1)	5,978.6 (12.9)	6,837.6 (14.4)	7,824.5 (14.4)	8,876.3 (13.4)	9,704.7 (9.3)
소비자 (판매) 신용	1,344.9 (5.6)	1,442.1 (7.2)	1,556.6 (7.9)	1,748.6 (12.3)	1,899.6 (8.6)	2,012.2 (5.9)	2,116.1 (5.2)	2,231.6 (5.5)	2,326.0 (4.2)	2,430.8 (4.5)
기타	394.3 (4.2)	421.9 (7.0)	427.3 (1.3)	449.2 (5.1)	463.4 (3.2)	479.9 (3.6)	509.7 (6.2)	524.4 (2.9)	593.3 (13.1)	681.7 (14.9)

자료: FRB, Flow of funds accounts.

-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주택관련 대출이 소폭 증가하였을 뿐 소비자(판매) 신용은 오히려 감소한 가운데 가계신용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가계신용은 장기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97년 233.8조 엔에서 '01년 249.8조

4) 일본의 경우 금융부채자산잔액표 상의 가계 부문에 가계 신용이 가계 대출과 소비자 신용으로 나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 잔액을 가계신용으로 칭하였음. 또한 가계 부채가 가계 대출과 소비자 신용을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은 민간금융기관의 소비자 신용과 할부 채권의 합으로 계산하였고, 가계대출은 민간 금융기관, 공적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대출금에서 소비자 신용과 할부 채권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하였음. 이렇게 계산한 소비자 신용액은 일본크레딧산업협회(日本クレジット産業協會)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용액보다 과소 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엔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감소세로 반전하여 '06년에는 246.6조 엔을 기록

- 가계대출 잔액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관련 대출이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97년 150.9조 엔에서 2006년 187.2조 엔으로 36.7조 엔 증가에 그침
- 소비자(판매)신용은 97년 41.7조 엔에서 2000년들어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 39.4조 엔을 기록

< 일본의 가계신용 추이 ('07~'06년) >

(단위: 조 엔,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가계 신용	233.8 (3.8)	236.1 (1.0)	244.7 (3.7)	247.8 (1.3)	249.8 (0.8)	247.7 (-0.9)	246.9 (-0.3)	246.5 (-0.1)	247.8 (0.5)	246.6 (-0.5)
가계 대출	192.1 (4.7)	195.0 (1.5)	202.9 (4.0)	205.8 (1.5)	206.8 (0.5)	205.2 (-0.8)	206.0 (0.4)	205.8 (-0.1)	207.4 (0.7)	207.1 (-0.1)
(주택관련 대출)	150.9 (5.1)	162.1 (1.4)	170.4 (4.3)	172.8 (1.8)	180.2 (0.2)	183.4 (-0.6)	183.8 (0.7)	184.2 (0.2)	186.5 (1.3)	187.2 (0.3)
소비자 (판매)신용	41.6 (0.1)	41.4 (-1.2)	41.8 (1.8)	42.0 (0.3)	43.0 (2.4)	42.5 (-1.1)	40.8 (-4.0)	40.7 (-0.4)	40.4 (-0.6)	39.4 (-2.6)

자료: 일본통계청. ( )은 전년대비 증가율

-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가운데 그 비중의 변동성도 큼
  - 미국은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이 25%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보다 동 비중이 10%p 낮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14%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간 미국은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이 비중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동 비중이 2002년 12.6%를 기록한 이후 2003년에는 6.8%로 하락한 이후 정체를 보이며, 2006년에도 6.9%로 외환위기 수준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미국, 일본, 한국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 추이 >

(단위: 십억 달러, 조엔)

	미국			일본			한국
	민간소비 지출	소비자 (판매)신용	비중	민간소비 지출	소비자 (판매)신용	비중	비중
'97	5,547.4	1,344.9	24.2%	282.8	41.6	14.7%	10.1%
'98	5,879.5	1,442.1	24.5%	283.0	41.1	14.5%	7.5%
'99	6,282.5	1,556.6	24.8%	284.3	41.8	14.7%	8.0%
'00	6,739.4	1,748.6	25.9%	283.1	42.0	14.8%	8.3%
'01	7,055.0	1,899.6	26.9%	283.3	43.0	15.2%	11.1%
'02	7,350.7	2,012.2	27.4%	283.2	42.5	15.0%	12.6%
'03	7,703.6	2,116.1	27.5%	282.6	40.8	14.5%	6.8%
'04	8,195.9	2,231.6	27.2%	284.4	40.7	14.3%	6.3%
'05	8,707.8	2,326.0	26.7%	287.5	40.4	14.1%	6.6%
'06	9,224.5	2,430.8	26.4%	288.7	39.4	13.6%	6.9%

자료: 각국의 국민계정.

- 가계 대출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소비자 신용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상태로서 주택 대출과 소비자(판매) 신용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미국과 일본에서는 가계 신용 중 주택대출이 75% 내외, 소비자(판매)신용이 16~20%로 대부분을 차지
  - 한국은 일반 대출이 60% 수준에 가깝고, 주택대출과 소비자(판매)신용의 합이 40%를 다소 상회하는 실정임[5)]

< 미국, 일본, 한국의 가계 신용 구성비 >

	미국			일본			한국		
	주택대출	소비자 (판매) 신용	기타	일반대출	주택대출	소비자 (판매) 신용	일반대출	주택대출	소비자 (판매) 신용
'03	72.3%	22.4%	5.4%	9.0%	74.4%	16.5%	60.0%	34.1%	5.9%
'04	74.0%	21.1%	5.0%	8.8%	74.7%	16.5%	59.0%	35.6%	5.3%
'05	75.3%	19.7%	5.0%	8.4%	75.3%	16.3%	58.2%	36.5%	5.4%
'06	75.7%	19.0%	5.3%	8.1%	75.9%	16.0%	57.3%	37.3%	5.4%

자료: 미국 BEA 및 FRB, 일본은행 및 내각부, 한국은행.
주: 한국은 주택 대출이 별도로 분류된 자료가 2003년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음.

5) 한국은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나 관련 금융시장의 미발달 등의 원인으로 일반 대출을 통하여 주택 구입용 자금의 부족분이나 전세용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관련 자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각국의 GDP대비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동 비중이 1997년 66.8%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3년 70.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여 2006년 현재 69.9%를 나타냄
  - 한편, 일본과 한국은 미국보다 10~15%p 낮은 50%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5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55%를 하회하고 있음

< 미, 한, 일 3국의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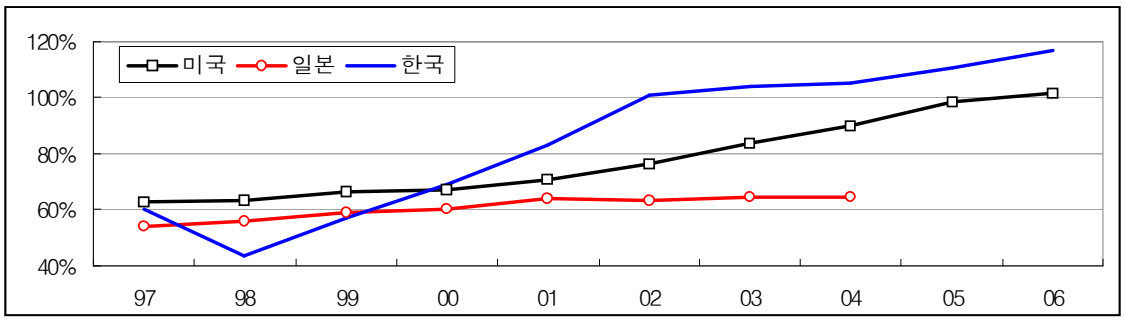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미국	66.8	67.2	67.8	68.7	69.7	70.2	70.3	70.1	70.0	69.9
한국	52.7	49.3	51.9	54.0	55.2	55.7	53.7	51.5	52.6	53.5
일본	55.1	56.2	56.9	56.2	57.4	57.8	57.2	57.1	57.1	56.6

자료: 각국의 국민계정.

- 한편, 가계의 금융부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개인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가계신용에서 소비자(판매) 신용과 기타 항목을 제외한 부분)의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상황
  - 일본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중이 65% 선에서 안정적인 반면, 미국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102%에 달하고 있음
  - 한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동 비중이 높아 가계 대출이 과도한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 미국, 일본,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 추이 >

(단위: 조원)



자료: 미국 BEA, and FRB, Flow of Funds Accounts, 일본은행, 자금순환 및 내각부.
주: 미국은 주택대출, 일본과 한국은 가계대출 총액

· 특히, 한국과 미국이 공히 2000년대 들면서 동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으로 판단됨

3. 1만 달러 시기의 미국, 일본과의 국제 비교

○ 가계 신용 증가 추이

- 1인당 GNI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 기간 동안의 가계 신용 증가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미국('78~'88년)과 일본('84~'88년)은 연평균 가계신용 증가율이 각각 10.7%와 9.1%를 보인 반면, 한국은 14.4%를 나타냄
  · 미국의 경우 동기간 동안 가계대출(주택대출)이 소비자(판매) 신용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즉, 주택대출은 '78년 708.6십억 달러에서 '88년 2,052.8십억 달러로 약 2.89배 증가하였고, 소비자(판매) 신용은 311.3십억 달러에서 742.5십억 달러로 2.38배 증가

< 미국의 가계신용 추이 ('84~'88년) >

(단위: 십억 달러)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가계 신용	1105.4 (16.8)	1276.1 (15.4)	1396 (9.4)	1507.2 (8.0)	1576.4 (4.6)	1732 (9.9)	1943.3 (12.2)	2276.5 (17.1)	2536 (11.4)	2753.8 (8.6)	3042.2 (10.5)
주택 대출	708.6 (17.5)	826.7 (16.7)	926.5 (12.1)	998.2 (7.7)	1031.1 (3.3)	1116.2 (8.3)	1242.8 (11.3)	1448.3 (16.5)	1647 (13.7)	1826.6 (10.9)	2052.8 (12.4)
소비자 신용	311.3 (17.5)	354.6 (13.9)	358 (1.0)	377.9 (5.6)	396.7 (5.0)	444.9 (12.2)	526.6 (18.4)	610.6 (16.0)	666.4 (9.1)	698.6 (4.8)	745.2 (6.7)
기타	85.5 (8.5)	94.8 (10.9)	111.5 (17.6)	131.1 (17.6)	148.6 (13.3)	170.9 (15.0)	173.9 (1.8)	217.6 (25.1)	222.6 (2.3)	228.6 (2.7)	244.2 (6.8)

자료: FRB, Flows of funds accounts. ( )은 전년대비 증가율.

- 일본은 1인당 GNI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가계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판매) 신용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 가계신용은 '84년 88.1조 엔에서 '88년 127.6조 엔으로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대출도 8.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반면, 소비자(판매) 신용은 '84년 9.6조 엔에서 '88년 23.1조 엔으로 연평균 22.34%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일본의 가계신용 추이 ('84~'88년) >

(단위: 조 엔)

	가계신용	가계대출	주택관련대출	소비자신용
'84	88.1 (6.2)	78.4 (5.5)	62.3 (6.5)	9.6 (12.5)
'85	92.8 (5.4)	81.8 (4.3)	65.2 (4.5)	11.0 (14.0)
'86	99.3 (7.0)	86.3 (5.5)	70.3 (7.9)	13.0 (18.5)
'87	111.4 (12.2)	94.9 (9.9)	78.7 (11.9)	16.5 (27.0)
'88	127.6 (14.5)	104.5 (10.1)	87.7 (11.4)	23.1 (39.6)

자료: 일본은행. ( )은 전년대비 증가율.

- 미국의 소비자(판매) 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1인당 GNI 1만 달러 시점에 소비자(판매) 신용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1만 달러 시점에 소비자(판매) 신용의 민간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이 이미 20% 수준에 도달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이 84년 5.7%에서 11.2%로 급증하였음
  - 한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용 규모가 1994년에서 15.6조 원에서 2006년 31.5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의 비중이 94년 8.8%에서 2006년 6.9%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 미, 일, 한국의 동일 소득구간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율 >

		민간소비	소비자(판매)신용	비중
미국	1978	1,428.5십억 달러	311.3십억 달러	21.8%
	1988	3,353.6십억 달러	745.2십억 달러	22.2%
일본	1984	169.0조 엔	9.6조 엔	5.7%
	1988	207.0조 엔	23.1조 엔	11.2%
한국	1994	177.9조 원	15.6조 원	8.8%
	2006	453.9조 원	31.5조 원	6.9%

-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미국이 60%대 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50%대 초반을 보이고 있음
  ·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미, 일, 한 3국의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 >

미국		일본		한국	
년도	비중	년도	비중	년도	비중
1978	62.3%	1984	55.1%	1994	54.1%
1988	65.7%	1988	53.5%	2006	55.2%

· 일본의 경우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민간소비지출 대비 소비자(판매) 신용 비중은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가계 신용의 항목별 구성비

- 가계 신용의 항목별 구성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택 대출이나 소비자(판매) 신용의 비중은 작은데 반하여 가계 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임

- 미국은 항목별 구성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음

- 일본은 가계 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자(판매) 신용의 구성비가 대폭 증가하여 구성비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임
- 반면, 한국은 주택 대출이나 소비자(판매) 신용의 구성비 비중이 작은 반면 가계 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임

< 미, 일, 한 3국의 가계 신용의 항목별 구성비 >

		주택대출	소비자(판매)신용	기타/가계대출
미국	1978	64.1%	28.2%	7.7%
	1988	67.5%	24.5%	8.0%
일본	1984	70.8%	10.9%	18.3%
	1988	68.8%	18.1%	13.1%
한국	1994	-	13.5%	86.5%
	2006	37.3%	5.4%	57.3%

4. 분석 결과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 분석 결과 종합

- 소비자(판매) 신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게 왜소한 상황임
  - ·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53.5%로 일본의 57%, 미국의 69.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소비자(판매) 신용은 2006년 현재 민간소비지출 대비 6.9%에 불과하여 1인당 GNI 1만 달러 시절인 1994년 8.8%보다 오히려 줄었음
  - · 미국은 동 비율이 1인당 GNI 1만 달러에 달한 1978년에 이미 21.8%에 도달하여 2만 달러인 1988년 22.8%로 유지되었음
  - · 일본은 1인당 GNI 1만 달러 시기인 1984년 5.7%에서 2만 달러인 1988년에는 11.2%로 증가하였음
  -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비자(판매) 신용 규모가 작은 것은 2003년의 카드 대란에 따른 소비자 신용 시장 발달 지연, 소비자 금융 시장의 미발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가계 신용의 총규모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가계 신용은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 있어서 축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신용 비중은 2006년말 현재 123.4%로 1인당 GNI 2만 달러 시기의 미국 81.2%, 일본 52.6%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상황임
  · 2006년 현재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미국 134.5%, 일본 77.4%(2004년)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가계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가계 부실화와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2006년 가처분소득 471.5조 원, 총 가계대출 550.4조 원, 가계 이자부담 추정액은 가처분소득의 8.2~10.5%에 해당하는 연간 38~50조 원(평균 금리 7~9% 적용)

- 항목별 구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가계 대출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 가계 대출은 116.7%에 달하고 있는데,
  · 이중 주택 대출은 46.1%에 불과한 반면, 비주택 대출은 70.7%에 달하여 비주택 부문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임
  · 이는 주택 대출 관련 규제, 금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비주택 대출 형태로 금융이 일어나기 때문임

○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가계 신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은 가계 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판매) 신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 중심의 내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이를 위하여,

- 첫째, 모기지 담보부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금융기관의 자산 유동화와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 금융 공급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우량 할부금융사를 주택금융전문회사로 육성하거나, 주택 대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 전문 모기지 회사를 육성함

· 모기지 담보부 채권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하여 연기금 및 보험사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함
· 한편, 모기지 담보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위험 관리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함

- 둘째, 소비자(판매)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소비자 금융이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시한을 연장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공제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현재 2010년까지 연장)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및 취급 상품 개발에 유연성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예: 대환대출 허용 등)

- 셋째, 신용평가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함
· 아직까지 기업 부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 또한, 채권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함

- 넷째, 선진형 신용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 개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신용 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부채 탕감 정책을 자제하고, 개인 신용회생제도의 요건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어려서부터 금융 경제 및 신용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교육 과정 내에서 경제 교육 실시

- 다섯째, 과도한 가계 부문 대출의 안정화를 통한 가계 건전성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함
· 금융 당국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긴축 통화 및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가야 할 것임
· 가계 대출 급증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표 한 형 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8월 실업률 3.1%

○ **8월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은 61.7%에서 정체되었으나,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이 59.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데 힘입어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1%를 나타냄**

- 산업별 취업자 증가수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만5천명, 전년동월대비 5.0%), 전기·운수·통신·금융업(5만9천명, 2.5%), 도소매·음식숙박업(1만6천명, 0.3%) 등은 증가한 반면

- 농림어업(-7만1천명, -3.7%), 제조업(-6만2천명, -1.5%), 건설업(-1만4천명, -0.8%) 등은 감소하였음

- 실업자는 75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 명(-6.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2/4	3/4	4/4	1/4	2/4	7월	8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5.1(0.8)	4.8 (1.2)	4.0(0.9)	4.0(0.9)	5.0(1.8)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6.1	2.9	4.5	7.1	5.3	9.8	-
		설비투자추계	6.3	7.4	6.7	11.8	5.1	11.3	12.1	1.3	-
		건설수주	7.3	9.0	-14.7	37.1	27.1	26.3	26.3	-14.9	-
		수출	12.0	14.4	16.9	16.3	13.8	14.6	14.2	17.8	14.4
	공급	산업생산	6.3	10.1	11.5	11.3	5.2	3.3	7.1	14.3	-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341	2,331	2,330	2,284	2,370	2,375	**2,346**
		실업률 (%)	3.7	3.5	3.4	3.3	3.2	3.6	3.2	3.2	**3.1**
		수입	16.4	18.4	20.4	21.1	13.0	13.3	14.3	14.5	9.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7	4	61	-17	2	16	-
	무역수지 (억$)		232	161	48	25	75	25	53	11	15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2	2.5	2.1	2.0	2.4	2.5	2.0
	생활물가		4.1	3.1	3.2	3.5	2.6	2.3	3.0	3.3	2.4
	생산재물가		3.9	4.8	6.1	5.8	1.8	2.1	3.3	1.9	-
	최종재물가		0.3	0.5	0.3	0.6	0.4	0.3	1.1	0.7	-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의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혼조 지속

- **금리** :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4.32%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단기적인 신용경색 완화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여 전주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4.38%→ 4.45%)
- **환율** : 달러화는 미국 경기의 침체에 따른 미 연방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유러화에 대해 소폭 약세를 보였고, 일본 2/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 및 일시적인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음 ($/€ : 1.3769→1.3875, ¥/$:113.4→115.4)

○ (국내 금융 시장) 원화 환율의 하락

- **주가** :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의 영향으로 1,813.5p까지 하락하였으나,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전주말 대비 하락 (1,884.9→1,870.2)
- **금리** : 단기금리(CD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단기금리 역전 우려 등으로 국고채의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전주말 대비 강보합 시현 (국고채 3년 수익률, 5.36→5.37%)
- **환율** : 한국은행의 스왑시장을 통한 미 달러화 매도 및 미 연방은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역외세력이 달러화를 매도함에 따라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938.0→928.4원)

○ (전망)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 우려로 주가의 변동성 확대의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1/4	2/4	3/4	4/4	1/4	2/4	9.7	9.14
국내	거래소 주가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884.9	1,870.2
	국고채3년(%)	4.93	4.92	4.57	4.92	4.76	5.26	5.36	5.37
	원/달러	971.6	948.9	946.2	929.8	940.9	923.8	938.0	928.4
해외	DOW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113	13,3443
	Nikkei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6,122	16,127
	미국채10년(%)	4.85	5.14	4.63	4.70	4.57	5.02	4.38	4.45
	일국채10년(%)	1.78	1.93	1.68	1.69	1.60	1.88	1.60	1.55
	달러/유로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3769	1.3875
	엔/달러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3.38	115.38
	두바이($/배럴)	59.16	67.17	57.33	56.71	63.12	66.42	70.69	73.39